

전·현 골프여왕 총출동, 메이저 사냥 나선다

유소연·박인비·신지애, 30일 LPGA 투어 'KPMG 위민스 챔피언십' 출전



유소연 (27·메디힐)



박인비 (29·KB금융그룹)



신지애 (29·스리브트)

유소연(27·메디힐)이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가장 먼저 2승을 신고하는 동시에 세계랭킹 1위였던 에리아 푸타누간(태국)을 밀어내고 새로운 골프여왕에 등극했다.

한국 선수가 여자골프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신지애(29·스리브트), 박인비(29·KB금융그룹)에 이어 세 번째다.

2006년 여자골프 랭킹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이래 1위 자리에 오른 선수는 모두 11명.

이 가운데 3명이 한국 선수로 여자골프 세계 최강국다운 위용을 자랑한다.

그리고 전·현직 세계랭킹 1위인 유소연, 박인비, 신지애가 나란히 LPGA 투어 무대에 서며 메이저 사냥에 나선다.

이들은 오는 30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올림피아 필즈 컨트리클럽(파71.6588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350만 달러)'에 출전한다.

새 여왕 자리에 오른 유소연은 내진김에 2주 연속 우승은 물론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도 품에 안을 기세다. 이번 대회 우승을 한다면 꿈꿔왔던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성공 다가서게 된다.

유소연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메이저 사냥꾼' 박인비다.

박인비는 지난해 자신을 괴롭혔던 손가락 부상 속에서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끝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는 오를 곳이 없어 보이는 박인비는

복귀를 앞두고 "더 많은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큰 대회에서 놀라운 정도로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박인비에게 메이저대회는 우승 경쟁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 충분하다.

신지애도 특별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며 세계랭킹 1위를 경험한 3명의 한국 선수가 나란히 한 대회에 나선다.

신지애가 일본 무대에 정착하면서 이들 3명의 만남이 언제 또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미를 더한다.

그렇다고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랭킹 1위에 올랐고, 메이저대회 2승을 포함해 투어 통산 11승을 거둔 신지애는 모처럼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유소연에게 3주 만에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준 푸타누간과 8주 동안 1위 자리를 굳건히 하다 최근 3위까지 밀려난 라디아 고(뉴질랜드)도 명예 회복에 나선다.

통산 2승을 모두 메이저대회 승리로 장식한 전인지(23)도 준우승 징크스를 털고 시즌 첫 승을 거두겠다는 각오다.

한 동안 부진을 거듭하다 지난달 '미어 클래식' 정상에 오르며 기량을 회복한 다렌던 챔피언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김민근 기자

'이번에는...' 6년전 은메달 안새봄, 아코스타 꺾고 4강 진출

남자 58kg급 정운조, 8강 고비 넘고 동메달 확보



2011년 경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부 73kg 초과급 결승에서 아쉽게 은메달에 그친 안새봄(27·춘천시청)이 6년 만에 금메달 획득의 기회를 잡았다.

안새봄은 27일 무주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73kg 초과급 8강에서 브리세이다 아코스타(멕시코)를 21-1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2011년 경주 대회 은메달리스트였던 안새봄은 결승에서 안드레아 카롤리나 그라페(프랑스)에게 0-1로 무릎을 꿇었다.

6년 만에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안새봄은 32강전과 16강 모두 10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세계랭킹 4위 아코스타를 상대로 2라운드까지 접전을 펼친 안새봄은 3라운드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선보이며 대거 11점을 뽑아 기분 좋게 준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남자부 58kg급 정운조(22·경희대)도 8강전에서 까다로운 상대 타원 한프람(태국)에게 28-15 역전승을 거두고 동메달을 확보했다.

정운조는 세계선수권에 첫 출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16강까지 상대를 여유 있게 누르고 8강에 올랐다.

8강전 상대는 지난해 리우올림픽 남자 58kg급 16강에서 금메달 후보였던 김태훈에게 통탄의 패배를 안긴 한프람이다.

세계랭킹 7위의 한프람은 아직 랭킹조차 없는 정운조에게 다소 박한 상대였다. 경기 초반 2-6으로 끌려가며 고전했다. 하지만 2라운드 들어 무차별 적인 발차기 공격을 연속해서 성공시키며 무려 23점을 때내 승기를 잡았다.

한편, 여자 53kg급에 나선 김민정(22·한국가스공사)은 8강전에서 이네세 타르바다(라트비아)에게 3-4로 역전패 해 4강 문턱에서 무릎 꿇었다. /김민근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주민·선수·관람객 '하나로'

무주군민들과 자매국가 응원단이 함께 펼치는 응원전 '훈훈'

무주군민들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의 선전을 바라며 날마다 경기장을 찾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청을 비롯한 무주군태권도협회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들과 6개 읍면 부녀회·이장협의회, 청년회 등이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판아메리카 등지에서 온 175개 참가국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고 있다.

자매결연을 통한 응원전은 참가국들과의 돈독한 우의를 다져 태권도 중추국의 위상을 높이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준다는 취지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태권도터서츠를 입은 무주군민들과 자매국가 응원단이 함께 펼치는 응원전은 이번 대회에서 훈훈함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있다.

27일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한 주민은 "미안마 선수를

응원하러 왔는데 선수가 임원해서 3명에서 왔다고 하더라"며 "힘찬 박수 한번이 낫선 곳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쳤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을 지켜본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경기가 없는 이란선수들과 함께 응원을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이라"며 "함께 응원해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서 보람도 있었고 선수들의 경기 모습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었다"고 전했다.

무주군민들은 30일까지 태권도성지의 주민들로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의 주민들로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오는 30일까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에 울려 퍼질 선수들의 기합 소리와 그들을 향한 무주군민들의 파이팅



소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83개국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운영, 흥미진진한 경기 진행으로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971명의 선수들이 남·녀 8체급에서 금메달을 겨냥한 힘찬 발차기를 하게 된다.

28일까지 치른 경기에서는 한국의 심재영(여·46kg), 김태훈(-54kg), KHRAMTCOV Maksim(남·74kg/러시아), STANKOVIC Vanja(여·49kg/세르비아)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청 복싱부 석현찬 선수, 국가대표 발탁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복싱) 소속 석현찬(사진)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돼 6월 25일자로 태릉선수촌에 입촌했다.



2016년 1월 1일에 남원시청에 입단한 석현찬 선수는 강월성 감독의 지도하에 기량이 급성장해 16년에 대통령배 전국복싱대회 등 3개의 대회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연이어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며 남원 복싱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선수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의 첫 복싱대회였던 2017년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 남자일반부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며 남원시청 복싱부의 자긍심을 높이고, 마침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그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웰터급은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린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파퀴아오 등 국내외의 강자들이 즐비한 체급이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원시청 복싱부 강월성 감독은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하고, 성과를 내온 선수만큼, 국가대표로서도 활약하여 남원시 및 국내 복싱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